



맥도날드 농가와 상생 4탄 '진주 고추' 버거 선배 L1



Life

축각패드 등 K-바이오 최신크 기술 공유 L2



고소득도 무자녀도 '반값 전세'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나왔다

서울시, 신혼부부 300가구 모집 59㎡ 타입 4억대... 시세 50% 수준 월소득 974만원 맞벌이 신청 가능 10년 거주 보장, 출산 가구는 20년



오세훈 서울시장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II(SHift2)' 공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II' (SHift 2) 선정 기준을 과격적으로 완화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올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II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 II는 출산 또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 정책이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의 경우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올 7월 기준 49㎡는 6억원대, 59㎡는 8억원대로 시세가 형성돼 있어 50%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

계약(2년 단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II 서류심사 결과는 내달 9일, 최종 당첨자는 오는 10월 7일에 발표한다. 당첨자는 올 12월 4일부터 입주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에 10년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아이 낳으면 20년을 보장한다"며 "또 20년 살고 난 다음에 주변 시세의 10%를 할인하고, 셋을 낳으면 2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정부에 철도사업 예타 개선 건의

경제성 평가 비중 하향 등 손질 요구 철도사업 속도... 균형발전 이끌 것

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겼다.

시는 "교통 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이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로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시는 철도사업 과급 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과급 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

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겼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빅데이터로 위기도민 1500명 지원

복지 사각지대 놓인 도민 발굴

기 도민 150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도민 1500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앞서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700명을 선별한 후 31개 시군과 함께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했다.

도는 이달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다.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된 위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교육부, 의대생 유급 우려에 '학년제' 전환

의대생 유급방지 가이드라인 성적처리 내년 2월까지 연기 3학기제, 보충수업 가능성도

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제로 운영되던 의대 학사가 올해는 학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간 학기제로 운영되던 의대 학사가 올해에만 학년제로 전환돼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이 내년 2월까지 미뤄진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의대생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이 기준점이 된다. 의대생들이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 수강신청 우선권은 내년 신입생들에게 주어진다. 정부는 본과 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고, 이후 유급을 당하지 않고 진급할 수 있도록 특별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간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각 대학·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개편도 가능하다. 예컨대, '3학기'나 '보충 수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에 한해 각 대학은 의대 학생 유급 판단 시기와 대상, 기준을 상황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지난 1학기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대학은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그간 학기

이를 통해서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대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의학과 4학년 학생의 의사 국시 추가 응시 기회 제공을 위해 정부는 2025년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0 | 해질 / 19:55

7월 11일 (木) 음력 : 6월 6일

수도권 날씨 22~3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9/32, 동두천 20/31, 가평 19/32, 양평 20/31, 용인 22/30, 평택 21/31, 파주 20/31, 안성 22/28, 수원 22/30, 백령도 20/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마약 투약' 오재원 연루자 29명, 검찰 송치...두산 선수 9명 /사진 뉴시스 ▲KBO, 시각장애인 관람객 대상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 실시

▲팀 K리그 유니폼 공개...산리오 캐리커츨·아디다스와 협업 ▲KPGA, 군산CC 오픈서 역대 최초로 선수들 반바지 허용



▲17세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로 향하는 최연소·최고령 태극전사 /사진 뉴시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아트마켓 트렌드 2024' 발간

버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